

착하고 충성된 종

마태복음 25 장 14-30 절

2020 년 11 월 15 일

세 아들을 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세 아들은 각자 고유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과일 나무를 잘 키우는 재능, 그리고 둘째는 양을 잘 키우는 재능 그리고 막내는 바이올린을 잘 켜는 재능입니다. 왕이 중요한 일로 오랫동안 외국에 나가야만 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세 아들을 불러서 당부하였습니다. 자기가 없는 동안 백성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잠시 동안은 나라가 편안했는데, 혹독한 눈 바람이 부는 겨울이 닥쳐오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땀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습니다. 첫째 아들이 어려운 결정을 해야 만 했습니다.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열매 나무들을 잘라서, 땀감으로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둘째 아들도 어려운 결정을 해야 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먹을 것이 부족하여서 허덕이는 것을 보고는,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양들을 잡아서 먹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땀감과 음식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참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추운 겨울 날이 지속되면서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기 시작했고, 나라가 침체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기운을 불어넣어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셋째 아들에, 바이올린을 연주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등지고 떠나갔습니다.

왕이 집에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린 것을 보고 상심하였습니다. 세 아들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님, 노여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겨울 날씨가 너무 혹독해서 땀감으로, 열매 나무들을 잘라서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저는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 양들을 잡아 먹으라고 했습니다.” 첫째 둘째 아들의 말을 듣고, 화내기는 커녕, 아버지는, 두 아들을 끌어안으면서 “참 잘했다. 참 자랑스럽다” 하였습니다.

막내 아들은 바이올린을 가지고 아버지 앞으로 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바이올린을 연주해 달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음악을 들으실 아버님이 없어서요.” 아버지 대답하기를, “잘 했네. 그러면 지금 내 마음이 슬픔으로 가득차 있으니, 바이올린 연주 좀 해 다오.” 막내아들이 바이올린을 어깨에 끼고 연주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연주를 오랫동안 하지 않아서, 손가락이 굳어서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연주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왈, “네 바이올린 연주로 사람들의 기운을 북돋아 줄 수 있었을텐데, 네가 연주를 하지 않아서, 이 나라를 떠나게 되었구나. 그리고 너는 더이상 바이올린을 연주를 못하게 되었구나. 그것이 네가 받은 벌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탈렌트 비유의 말씀을, 헨리 쏘로우라는 사람이 각색하여 쓴 이야기입니다.

오늘 받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알게되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부터 재능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는 다섯탈란트, 어떤 이는 두 탈란트, 어떤 이는 한 탈란트” (14 절)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탈렌트의 숫자가 다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두가 탈렌트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탈렌트, 재능을 우리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작든 크든, 우리의 재능이 하나님께로 부터 왔으니, 참 소중한 것입니다.

하바드 대학의 하워드 가드나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 학자가 지능 조사는 테스트가 온전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지능 IQ Intelligence Quotient 조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 두가지 분야의 재능을 중심으로 테스트 하는 거라는 겁니다. 가드나 학자는, 7 가지의 다른 재능을 간과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언어 지능에 탁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글쓰는 사람, 시인들, 소설가들입니다. 수리와 논리에 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리사, 회계사, 과학자들입니다. 거리 공간 감각이 발달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술가들 그리고 건축가들입니다. 몸의 균형을 잘 잡고 몸의 율동이 부드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 춤을 추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인간 관계를 잘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들입니다. 판매원들, 상담자들, 교사들 그리고 내적 세계를 잘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철학자들입니다. 현자들입니다. 음악에 재질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악 지휘자, 악기 연주자들이 있습니다.

가드나는 연구 조사한 끝에, 주장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이 7 가지 재능 중에 적어도 한 가지 재능이 우수하게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자기만의 고유한 재능이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현명하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에 맞게, 각각 다른 재능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두가 하나님 앞에 평등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투표가 같은 무게를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은 각각 다릅니다. 모두가 다섯 탈란트를 받지 않았습니. 여러분이 다섯탈란트를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인지는 몰라도 우리 모두는 탈란트를 받으셨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두개나 한 탈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다섯탈란트를 받은 사람들보다 아주 많은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2 탈란트나 한 탈란트를 받았습니.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 부터 받은 재능을 신실하게 사용하고 있느냐입니다. 재능이 얼마만큼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고유한 재능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하고 있느냐입니다.

아내 자랑 하면 꼴불견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해야 겠습니다. 매년 가르치는 아이들과 함께, 자선 음악회를 열고 모은 돈을, 비영리 단체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참 자랑스럽습니다. 10년을 넘게 매년 꾸준하게 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해에는, 코비드 전염병으로, 연주회가 힘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번 해에도 한다고 합니다. 어떡해요? 각자 집에서 연주한 것을 녹음해서, 유튜브에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유튜브에 올린 연주회를 보고 싶은 사람은, 기부하고 싶은 금액을 전자로 내고, 유튜브에 열어 볼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학생들도 연습하느라 열심이지만, 학부모들도 함께 광고하고 준비한다고 열심이더라고요. 주신 피아노 재능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들과 사랑을 나누고 있어 얼마나 기분이 훈훈한지 모릅니다. 금년이 14년째이라고 합니다.

2

오늘 비유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한 탈란트를 받은 사람은, 탈란트를, 재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지요? 이 사람은 받은 재능을 가지고 아무 것도 하지 않기도 마음을 먹었습니까?

서너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옳을 겁니다. 5 탈란트와 2 탈란트를 받은 사람은 재능을 활용하고 투자해서, 각각 5 탈란트 2 탈란트씩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투자했다가 잃어버리면 어떻하나? 두려워했을 겁니다.

또 하나 이유는, 아마도, 자기 탈란트가 작다고 생각하면서, 남들처럼 5 탈란트, 2 탈란트를 받았다면 잘 할 수 있을 텐데 하면서,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격지심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자격지심에, 작은 한 탈란트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무슨 대단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평가 절하하였을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떠합니까?

마이클 코스타 라는 지휘자가 오케스트라 연습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합창단이 큰 소리로 합창을 하고, 관악기들이 우렁차게 불어대고 해서, 피콜로 연주자가, 피콜라 아주 작은 피리이지요? 자기가 불어야 할 소절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연주가 별 소용이 없다는 생각에서요. 그런데, 갑자기 지휘자가 연습을 멈추고는, “피콜로 어디있습니까? 피콜로?”

전체 음악을 아름답고 조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작은 피콜로가 필요했습니다. 지휘자는 알았습니다, 피콜로가 빠져 있다는 사실을. 지휘자에게는, 모든 악기들이 중요합니다. 사실 작은 악기들이 더 중요합니다. 또, 작은 소절만 맡은 악기들이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클라이맥스에서 복치는 연주자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사람이 복을 치지 않으면, 음악이 멋지게 끝나지 못합니다. 1분을 채 하지 않지만 얼마나 중요한 파트인지 모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오케스트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악기 종류가 다릅니다. 악기 크기가 다릅니다. 악기 소리가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연주자이고, 모든 연주자가 참여하여야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야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사역이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안 해도, 내가 없어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 재물,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활용하지 않으면, 피콜로의 소리가 나지 않은 것을 지휘자가 알아채리듯이, 하나님께서 알아채리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3

말씀을 줄입니다.

오늘 비유에 보며는, 다섯달렌트 받은 사람은 5 달렌트를 더 만들었고, 두 달렌트 받은 종도 그렇게, 두 달렌트를 더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 (16, 17 18 절) 재능을 돈처럼 투자해야 할 것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받은 달렌트를 최대한 잘 투자하여서, 곱의 이익을 내기를 원하십니다.

투자 전문가들이 하는 조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먼저, 투자할 회사에 관하여 공부를 하라고 합니다. 둘째는, 투자를 다양하게 하라는 겁니다. 한 회사에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셋째는 물론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돈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긴 안목을 가지고 투자하라는 겁니다. 다 참 중요한 충고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조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이 많이 생기면 투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작은 돈을 가지고도 투자할 수도 있고, 지금 투자하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믿음이 많이 생길 때 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이 강해 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더 잘 안 다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지금. 우리에게 이미 주신 재능을 오늘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쪼록,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는 주님의 칭찬을 매일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